금남로 뒤덮은 성난 민심 "사악한 정권 끌어내리자"

학생·노동자 등 500여명 박근혜 퇴진 촉구 시국대회

전남대교수·로스쿨 시국선언…캠퍼스 대자보 잇따라

시국대회 성난 민심 들어보니

"최순실에게 국정을 통째로 맡긴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은 부끄럽다.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주말인 지난 29일 오후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정 농단 박근혜 퇴진 촉구 광주 시민 시국대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즉각적인 대통령직 사퇴와, 국정 농단의 책임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처벌요구도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시민들의 발언에서는 참담함이 느껴졌다.

갑작스런 초겨울 추위에도 대학생, 노동자, 성직자,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시국대회가 열리는 도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첫 시국 발언에 나선 임추섭 '민주주의 광주행동(광주시민단체 연대)' 공동대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담하다"면서 "사이비 교주 최태민과 그의 가족이 시키는 대로 국정을 이끌다 나라를 망쳐버린 박근혜를 국민의 이름으로 퇴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박근혜에게 우리 국민은 개, 돼지였을 뿐이다. 모두가 횃불이 되고 봉화가 되어 사악한 정권 끌어내리고 민중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결집을 호소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김명섭 신부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망가질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을 잃었고,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주임 오대성 교무는 "사드 배치 논란 전까지 원불교는 박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다. 사과드린다. 평화를 위해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학가에서도 시국을 한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남대 교수 143명은 지난 28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선언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내 정치와 행정에서 손을 떼라. 남은 임기 동안 의례적인 국가 원수의 역할만 맡으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참모와 총리와 장관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총사퇴를, 국회와 정당대표들을 향해선 "거국 내각을 조속히 구성해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행정을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주체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이 위임한 행정 수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뒤 "박 대통령이 국가 정치와 행정에 관여할수록 오히려 국가의 위기가 깊어진다"고 진단했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도 29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헌법 1조에서 천명한 국민 주권과 공화국의 이상은 말살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도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국회는 특정감사를 통해 엄중히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도 국민의 진실 요구에 응답하라"주장했다.

캠퍼스에 잇따라 나붙은 대자보에서는 대학생들의 분노가 느껴졌다. 전남대 국어교육 15학번이라고 대자보에 이름을 밝힌 한 학생은 "지금도 노동자들은 한 달에 백만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최순실과 그 측근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씩 자금을 지원받아 맘껏 사용하고 있다"고 개탄한 뒤 "이제 박근혜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진 사퇴'뿐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리를 방관한 이들도 모두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썼다.

조선대에도 대자보가 등장했다. 대자보엔 "왜 그동안 돈이 없는 부모를 원망하고 미안해 했는지 이제는 알게 됐다. 우리가 게으르고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무당의 농간에서 비롯됐다"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함께 나서야한다"고 적혀있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주말인 다음달 5일 오후 6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근혜 퇴진하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광주행동'이 지난 2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촉구 시국대회'를 열고 대통령 퇴진 및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학생과 노동자, 종교계 인사 등 시민 500여명이 참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적 장애인 10년 착취 前 도의원 검찰 송치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60대 남성을 10년간 임금 한푼 주지 않고 자신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부린 전직 도의원 〈광주일보 10월28일자 6면〉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의 피폐한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도의원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장성경찰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60대 남성에게 10년간 축사와 농장에서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횡령)로 오모(6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의원 출신인 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A(66)씨에게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정신질환 치료 전력 20대 행인에 묻지마 흉기 휘둘러

행인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30일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조모(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9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거리에서 행인 성모(3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공사비리 의혹 광산구 압수수색

광주지검 공사 업체-공무원 유착 정황 포착

건설과·비서실 등 컴퓨터 파일·문서 등 압수

광주 광산구가 공사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지검은 28일 공사 비리 의혹이 있는 광주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광산구청 건설과와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파일,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광산구가 발주한 일부 공사에서 부적정하게 업무가 처리된 점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건설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는지, 업무 처리가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건설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부 업체가 특정 공사와 관련해 광산구청 일부 공무원과 유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비리 수사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나 자문관과 연관된 특정건설사 등에서 비롯된 수사는 아니다. 별도의 혐의를 잡고 수사해오던 사안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 판결 2제

광주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해임은 무효

지난해 열린 광주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해임 총회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지위를 회복한 조합 집행부와 기존 집행부가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28일 화정주공 재건축조합 전임 조합장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총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총회가 해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조합은 360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문제로 지난해 10월 31일 기존 정삼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를 모두 해임했다. 조합은 이후 지난 3월 1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미자 조합장 등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조합정관을 변경했다.

원고 측인 정 전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당시 총회가 무효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조합장 지위는 회복했으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있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업무 복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세월호 당시 진도 VTS 센터장 징계 위법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47)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등을 들어 김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진도VTS의 센터장이었다. 김씨는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다가 참사 발생 당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유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만취 30대女 택시기사에 행패

쌍나팔

○…만취한 30대 여성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구토하려거든 내려서 좀 해달라"는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서행.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34)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택시에 탄 채로 운전기사 김모(27)에게 욕설을 한 것도 부족해 그의 다리에 마구 침까지 뱉었다는 것.

○…택시기사 김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술을 마시고 구토하기에 내려서 좀 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마구 욕을 해대고 침까지 뱉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지만, 승객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침을 뱉었을 리가 없다"며 오리발. /김형호기자kh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4423	1	순천시 감사터1길18, 4층 402호 33.3㎡	아파트	65,000,000 65,000,000	
2016타경 6290	1	광양시 광양읍 우산공원길64, 101동 5층 505호[삼익아파트] 84.96㎡	아파트	93,000,000 93,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 52494	1	순천시 해룡면 상삼길 46 65.97㎡	단독주택	81,378,84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332 215㎡[물건번호1:이종욱지분3분의2전부]	대	81,378,840	
2016타경 4843	1	여수시 고소동 839 278㎡	대	135,681,0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여수시 고소1길 17 1,2층각98.34㎡ 33.12㎡ 제시외 주택 등 107.2㎡	영업소	135,681,080	
2016타경 6610	3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489-16 520㎡	대	124,221,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목포함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123-6 176.66㎡ 제시외 다용도실 17.2㎡	단독주택	124,221,7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6타경 6382	1	순천시 동외동 202-6 955㎡[박경자지분95500분의5526전부]	대	51,000,000 51,000,000	일괄매각
		순천시 북문1길5, 비동 3층 302호 61.04㎡	다세대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5443	1	순천시 가곡동 산117-1 190538㎡[최경은,최일준,최경숙,최경옥,최경임,최경애,최용준각지분21/672전부,이정란지분9/672전부,최종호,최지호각지분각6/672전부]	임야	119,147,750 119,147,750	일괄매각.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동소 산117-5 82㎡[목록1과지분동일]	임야		
	2	동소 982-11 108.4㎡	대	36,856,000 36,856,000	
2016타경 629	2	광양시 중동 산24-3 234㎡	임야	19,422,000 19,422,000	2016타경1172[병합]
2016타경 5082	1	광양시 황길동 92-7 956㎡	답	361,368,000 361,368,000	
2016타경 5815	1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83 978㎡	답	3,187,8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85 793㎡	전	3,187,800	
	2	동소 318 1184㎡	전	2,368,000 2,36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6412	1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136 132㎡	전	5,280,000 5,2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70 149㎡	전	4,470,000 4,4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6696	1	순천시 동외동 156 422㎡	대	381,275,000 381,275,000	일괄매각
		동소 156-2 270㎡	대		
		동소 161-3 13㎡	대		
		동소 162-7 9㎡	대		
2016타경 6740	1	순천시 연향동 111-1 64평	대	64,660,000 64,660,000	
2016타경 7101	1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94 3269㎡[강경호지분1/2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5,959,000 35,959,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51085	1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62-1 2992㎡[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5,385,600 5,385,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422-1 1237㎡	전	2,226,600 2,226,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고흥군 도양읍 관리 712-1 1240㎡	전	15,128,000 15,1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산17-1 3372㎡	임야	1,686,000 1,686,000	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 5419	1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268-6 1950㎡ 제시외 주방 등 301.6㎡,계량기 1식	잡종지	262,138,200 262,138,2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562 95.2㎡	사무소		
2016타경 6542	1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2-12 175㎡	대	53,111,280 53,111,2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319 91.52㎡ 부속건물 변소3.75㎡ 제시외 주택 등 95.54㎡	점포		
2016타경 6610	1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489-8 1832㎡	대	333,223,700 333,223,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목포함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123-5 1층194.82㎡ 2층197.88㎡ 지하25.50㎡[보일러실] 제시외 보일러실 14.4㎡	여관		
		동소 123-5 1호 190.34㎡	여관		
	2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489-13 298㎡	잡종지	59,699,160 59,699,1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489-13 176.87㎡ 제시외보일러실 3㎡	근린시설		
		동소 489-14 288㎡	잡종지		
	4	동소 489-7 700㎡	대	86,630,400 86,630,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123 196.55㎡ 제시외 창고 등 95.5㎡	점포		
[기타]					
2016타경 629 2016타경 1172 [병합]	1	광양시 성황동 254-1 13007㎡	체육용지	11,006,774,400 11,006,774,400	일괄매각.별지기재도산중일부는경매대상에포함되지않음
		광양시 구마10길 3-15 [성황동,제1동] 지3층509.97㎡[기계실,전기실,사무실] 지2층586.84㎡[실내골프연습장] 지1층3753.78㎡[주차장] 1364.3㎡[실내골프연습장,식당] 1층983.73㎡ 2층824.42㎡ 3층792.06㎡	골프연습장		
		소재지:광양시 구마10길 3-15 [성황동,제1동] 종류:탑 골프랜드 2014년4월3일 13시19분 제3호	기타		
		소재지:동소 3-15 [성황동,제1동] 종류:탑 골프랜드 2014년4월3일 13시18분 제1호	기타		
		소재지:동소 3-15 [성황동,제1동] 종류:탑 골프랜드 2014년4월3일 13시20분 제6호	기타		
		소재지:동소 3-15 [성황동,제1동] 종류:탑 골프랜드 2014년4월3일 13시20분 제4호	기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자동차,중기]					
2016타경 8661	1	사용본거지: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05-27, 2층 등록번호:10마5199 차명:아반떼[AVANTE] 연식:2010	자동차	7,500,000 7,500,000	보관장소:순천시 덕암동140-9이수자동차매매상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6. 11. 14.[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11. 21.[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서홍석